

제146회 일본전문가 초청세미나

주제: 일본의 '전후'를 어떻게 볼 것인가 - 1995년이라는 또 하나의 전후 -

강연자: 권혁태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일본의 불안을 읽는다』의 저자 권혁태 성공회대학교 일본학과 교수의 세미나가 5월 30일 오후 국제대학원에서 열렸다. 본 세미나는 '일본의 전후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1995년이라는 시간적 지표의 의미를 2012년 현재의 시점에서 되돌아봄으로써 '전후'라는 시공간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는 문제제기와 참석자간의 열띤 토론으로 이루어졌다.

지금 일본에서 가장 중요한 논의는 '3·11 대진재 이후의 부흥'임이 틀림없다고 지적한 권혁태 교수는 이어서 주목할 점은 '3·11 이후'를 논의하면서 사카이야 다이치(堺屋太一)의 '제3의 패전론',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서 간 나오토(菅直人)가 말한 '제3의 개국론' 등에서 보여지듯이 '폐허론' 및 '전후'라는 역사적 시공간이 호출되고 있는 점이라고 운을 뚫었다. 원전의 혜택을 바탕으로 경제적 번영을 누려온 일본이 3·11 이후 '탈원전'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등 사회, 정치정세의 변화와 움직임이 포착되는 지금, 우리는 일본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그는 1945년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이른바 '전후'라는 시공간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시론적으로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옴진리교, 한신대지진 등 굵직한 사건이 많았던 1995년으로 표상되는 1990년대. 바로 이 시간적 지표의 의미를 2012년 현재의 시점에서 되돌아보는 것이야말로 중요한 논점이 되지 않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렇다면 1995년은 어떠한 의미가 있었는가? 권혁태 교수는 전후체제가 그 시대적 역할을 끝내고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 가능성이 있었던 시기로 정의했다. 일본의 전후 사회는 전형적인 '냉전형 발전' 모델이다. 따라서 냉전 해체와 아시아의 민주화가 나타난 1990년대의 일본은 사회 변화 요구, 장기불황에서 벗어나고자 한 경제개혁 요구가 일시에 표면화할 수밖에 없었다. 평화와 민주주의라는 전후의 가치가 당연히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바로 이 시기에 오옴진리교, 한신대지진과 같은 굵직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를 두고 전후 사회의 흐름의 귀결로서 '변곡점'으로 보는 시각과 개인과 민주주의를 중시한 나머지 발생한 전후 민주주의의 한계라는 시각, 그리고 서브컬처 세대, 로스트 제너레이션이 가지지 못한 거대담론에의 욕구 표출이라는 시각 등을 비롯해 두 사건을 관통하는 다양한 시각은 1995년에 일어난 또 다른 사건과도 연관되어 있다. '무라야마 담화', 산리즈카, 미나마타병, 약해에이즈(藥害AIDS) 등에 대한 사과 등. 일본정부는 국내외에 그 동안의 과오를 직접 사과했으나 이 역시 역사적, 법적 책임과 도의적 책임을 분리하여 전자를 회피하고 후자를 수렴해 전후 사회의 문제를 봉합하려는 시도에 불과했다.

3·11은 전통적인 보혁대립에도 변화를 초래했다. 탈원전을 주장하는 우파의 대두, 전통적 노조나 정당중심이 아닌 젊은 층 주도의 대중시위가 적지 않은 인원을 동원하는 등. 하지만 이 같은 새로운 현상에도 정치지형의 변화는 거의 담보되지 못했다. 왜 전통적인 리버럴 좌파는 3·11 이후에 새로운 정치적 비전으로 자리 잡지 못했을까? 해답은 2000년대 현상을 만들어낸 배경이 지근

의 것이 아니라 1990년대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던 다양한 논쟁, 일본 국가의 재편을 둘러싼 모색, 그리고 전후체제에 배태되어 있던 각종 문제의 표출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3·11 이후의 정치 및 사회 정세를 이해하고 앞으로 나타날 새로운 움직임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역시 1990년대라는 시공간의 의미를 되새겨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질의응답

문: '전통적인 리버럴 좌파'란 무엇을 지칭하는 것인가? '전통적인'이라는 용어를 굳이 사용한 이유는 무엇인가?

답: 리버럴 좌파에 '전통적인'이라는 용어를 붙인 이유는 사회당의 현실화 이전의 리버럴 좌파와 현실화 이후의 리버럴 좌파를 분리하기 위해서 사용하였다. 다시 말해서, '전통적'이라는 것은 1950년대~60년대에 형성되었고 자위대와 미·일안보에 대한 입장 또는 생각이 사회당의 현실화 이후 달라진 사람을 지칭하고자 했다. 용어의 사용에 정확히 구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낀다.

문: 발표에 등장했던 하시모토 토오루(橋下徹) 오사카 시장은 파시스트인가?

답: 하시모토 시장은 스스로 파시스트라고 물론 선언하지 않았다. 더구나 자기 언어로 본인의 사상을 체계화시키지도 않았다. 다만 매우 인종주의적이고 일본의 내셔널리즘적인, 선동하는 정치적 발언을 많이 해서 젊은 층으로부터 지지를 받는 것도 사실이다.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慎太郎) 도쿄도지사처럼 일종의 파시즘적 현상의 하나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

문: 지금 일본의 우파가 탈원전과 핵무기 보유를 동시에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이전에는 원전과 핵무기 보유를 함께 주장하지 않았는가? 어떠한 논리로 탈원전과 핵무기 보유를 함께 주장하고 있는가?

답: 우파의 탈원전 주장 근거는 국토유기체설과 같은 천황이 내려준 국토를 서구의 문명, 원전으로 오염시킬 수 있는냐는 것과 이미 원전건설을 통해서 다량의 플루토늄을 확보하였으므로 더 이상의 플루토늄 없이도 핵무장에 하등의 어려움이 없다는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대비를 잘하지 못해서 생긴 것이며 앞으로 타국이 쳐들어올 것에 대비해서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 원전은 국가의 기간사업이며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꼭 필요하고 원전에서 나온 폐기물 재처리하여 다시 핵무기 재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 세계 유일의 피폭국인 일본이야말로 핵무기를 가질 정당성이 있다는 주장 등. 자기논리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주장이 우파 사이에서도 있다.

문: '전후 민주주의는 악'이라고 보는 시각과 더불어 '전후체제'를 지양하고 새로운 정치체제를 가져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떠한 새로운 체제, '전후체제'를 대신해 설명할만한 밑그림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다.

답: 본인은 우파들의 전후 민주주의 공격과 전후 민주주의를 옹호했던 세력의 비판논리 모두 동의하지 않는다. 그들이 지향했던 가치가 일본사회에서 상식적이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역사와 주변사회의 희생 위에서 있다고 한다면 그 자체로도 매우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는 45년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고 전후체제의 번영은 주변의 역사와 희생으로 이루어졌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한다. 전후체제가 성취한 것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그것의 작동구조가 역사와 주변국의 희생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비판적인 인식을 하고 있고 이는 동시에 한국의 전후에 대한 비판도 될 수 있다.

문: 1995년에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은 전후 민주주의체제 안에 배태되어 있던 각종 문제의 결과로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답: 그렇다. 전후 민주주의체제 속에 배태되어 있던 문제가 그전까지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가 냉전해체 이후에 겉으로 표출됐다고 봐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드러난 문제가 해결에 이르지 못했다. 예를 들어 역사문제는 기존의 전후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는 피해 당사자가 직접 배상, 사죄를 요구할 수 없는 환경을 조건으로 자유롭게 여러 의견을 가지고 밝히는 것이 가능했다. 하지만 냉전해체와 아시아 각국의 민주화 이후, 피해자가 배상을 요구하고 직접적으로 눈앞에 문제들이 드러났을 때 추상적인 논리는 있었지만, 일본사회 속에서 설명하고 대응할 만한 논리를 가지지 못했다. 앞서 말한 90년대 이후에 벌어졌던 일종의 '사죄'를 통한 '봉합'이란 것은 체제 자체가 가진 문제 때문에 일어난 필연적인 문제였다고 판단한다.

문: 일본에서 리버럴리즘이 설 자리가 점차 없어지고 외면당하는 인상을 받는다. 1990년대는 패전 50년이 지나 직접적인 피해자는 물론, 피해의식을 갖는 사람이 많이 없어졌고 일본인 사이에서 전후 문제는 이미 청산되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 최근 가장 위협적이라고 느낀 점은 우파 담론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우파 담론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그런 것이 시민권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 다만, 그와 아울러서 다른 담론들이 병존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은 그것이 매우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그것이 문제다.

문: 하시모토 시장이 인기를 얻는 이유는 변화냐, 변화가 없느냐 하는 것이 일본의 위기를 논함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논거이냐는 의문이 있다. 일본사회의 위기를 진단함에 있어서 유동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내용이 아닌가?

답 : 하시모토 토오루 현상은 일회적 또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한다. 하시모토의 생각이 구체적인 정당정치의 이념으로 존재하리라 생각지 않는다. 일본을 극단적인 파시즘 사회로 몰고 갈 수 없는 조건은 미국도 중요하지만, 역설적으로 천황제의 역할이 중요하다. 만약 하시모토가 정치인으로 성공하게 된다 하더라도 매우 제한적일 것이고 그의 언설로 일본의 정치지형을 오른쪽으로 끌고 갈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본인이 우려하는 것은 하시모토를 지지하는 젊은이들의 심성과 3·11 이후에 다른 정치적 언설이 나오지 않는 것의 답답함이 크다.